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플인성신문



제 3 호 2015년 6월 15일 (월)

밝은 사회를 위한 좋은 언어 사용 문화를 만드는 신문 안내 : (02) 535-3449

행복교육은 인성교육에 달려있다



강연하고 있는 황우여 교육부총리

(재)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과 국회선별정치위원회는 5월 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초청하여 강연과 함께 국회 선플포럼을 개최했다.

'꿈 깨있는 행복교육, 신뢰받는 바른교육' 주제 100여 명 참석

갖게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나를 심어서 벽을 얹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은 어릴적부터 시작해야하고 선플운동은 청소년들이 악플 대신 선플을 달자는 인성 교육을 해왔습니다. 현재 선플 600 만개를 돌파하고 50만명의 회원을 돌파했다"며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를 외쳤다.

한동권 선플포럼 회장의 "황우여 부총리님의 강연을 통해 국가 경제가 나아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삶이 행복한 강연이 될 것 같다"는 인사말에 이어 입장화 백석대 읍대 교수가 축사를 부르고, 강연에 나선 황우여 교육부총리 소개로 이어졌다.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며 한국

교류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배우겠다고 하는데 한국교육이 성과를 낸 것은 20년전 531 교육개혁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로 힘차게 달려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자살이 제일 많고, 출산율이 제일 적습니다. 그동안 효율성의 목표와 방향이 이제부터는 우리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나의 행복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교육의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복교육의 내용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특히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인문기초와 연구중심의 교육과 사회가 요구하는 기술을 가진 인재들을 만들어 인성과 취업을 투 트랙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육의 혁신이 국가의 혁신이고 경제와 맞물려 교육개혁이 성공해서 속도와 효율성을 넘어

방향과 목표까지도 잘 하는 나라가 돼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안효대 의원(국회선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초·중·고교 선플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줄어 인성교육 차원에서 전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임내현 의원(국회선별위원회 간사)의 "행복지수 사회 보장제도로 지나친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답변으로 진행된 초청 강연에 이어 감사패 전달로 마무리 되었다.

선플운동은 인터넷상에서 육설과 비난, 혐오사실을 유포 하지 말고,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댓글을 달아주자는 운동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제2회 광화문 선플음악회'를 개최했다.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은 미래를 이끌어갈 한중일 청소년들이 선플운동을 통해 한중일 친선우호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데 앞장서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과 선플문자보내기는 한중일 3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중국 북경 어린대학교 행사현장은 중국 인민망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



5월 23일(토) 오후 1:30,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제2회 광화문 선플음악회'가 개최됐다. (첫 번째줄 원쪽부터 위청우수 인민당 공동대표, 장진 중국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대변인,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국지 대표, 추귀홍 주한국대사,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선플대전지부 고문 민병주 국회의원, 국회선별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춘진 국회의원, 선플재단 공동대표 정준호 영화배우)

한중일 3개국서 동시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선플재단,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제2회 광화문 선플음악회' 개최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은 5월 23일(토) 오후 1:30,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3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 및 제2회 광화문 선플음악회'가 개최됐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을 계기로 한중일 청소년들이 선과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광화문 선플음악회'에는 선플홍보대사인 불후의 명곡 가수 '알리'와 팝페라 가수 '이사벨', 비보이 세계1위 '퓨전MC', 중국가수 르첸чен, 걸그룹 씨네데이즈, 신인가수 제이블랙, 바이올리니스트 신윤성, 가수 신현

우 등이 출연하여 음악을 통해 음원과 배려의 선플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음악회에 앞서 오전 11시부터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위한 선플 웰니스 겸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4대문(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숙문) 와룡공원)에서 각각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까지 선플거리캠페인을 진행하는 '선플 웰니스 겸기대회'는 스마트폰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거북목 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바일 세대에게 바른 자세의 걷기와 체조를 통한 자세교정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조은태 기자



선플재단은 6일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초청, 국회 선플포럼을 개최했다.

'유커' 대신 중국관광객으로 바꿔 써야

최근 몇 년간 제주도에 중국 부자들이 부동산에 들러서 땅을 사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중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제주도를 사서 지금은 제주도의 30%가 넘는 부분이 중국인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중국국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나라의 제주도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에 관광을 하려 온다. 그러면서 중국 관광객을 부르는 단어가 다양해져서 '요커', '요우커', '유우커' 등등 여

러 가지로 불렸다. 그러자 국립국어원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함께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유커'라고 정했다. 그러나 중국인 관광객 중 한 명이 '유커'란 '관광객'이라는 뜻이며 한국 사람이 중국을 관광하려 가도 '유커'라고 말한다면 항의를 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국립국어원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최소한의 사전조사도 안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커'라고 정

의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은 그냥 중국인 관광객이라고 부르면 될 것을 굳이 외래어로 표기하려 한 것 자체가 국립국어원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국어정책 추진과는 거리가 조금 멀어 보인다. 국립국어원 자체도 한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외래어로 표기하려고 하는 자체가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글을 소중히 쓰지 않고 외래어와 외국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글문화연대
대학생기자단2기 박지현 기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를 가진 회사
'미래테크원', '미래코리아'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 흡시어터 스피커 케이스 개발」

「세계 최초 친환경 곡면 디자인핸들 개발」

「세계 최초 테두리가 없는 초슬림 베젤 개발」

세계 최첨단 Alumite 기술을 접목한 품격높은 디자인으로
통신기기 분야, Handphone, Camera, CarAMP, 냉장고 DVD Front speaker 까지
생활용품 전반에 걸쳐 '미래테크원', '미래코리아'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MIRAE
TECHWIN



MIRAE
KOREA

세종대왕 나신 618돌, 나신 곳 성역화 발대식 열려

한글 관련 시민 단체들은 세종대왕 나신 618돌 세종남을 맞아 2015년 5월 15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위원장: 김동길 전 연세대교수) 발대식 겸 세종대왕 나신 날 축하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 겸 모임은 지난 10여 년 전부터 한글단체가 서울시에 세종대왕이 나신 곳을 찾아 우리겨레 문화 성지로 꾸미자는 건의를 하여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 일대를 한글문화 관광 지로 조성하는 한글마루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국민들 협조가 아쉽기에 이 사업을 더 힘차게 추진하도록 시민단체와 온 국민이 참여해 추진 분위기를 뜨겁게 조성하자는 뜻으로 시민단체와 뜻 있는 국민이 모여 출범식을 갖게 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김동길 위원장은 인사를 통해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618들을 경축하고 "지난 1천 년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업적이 두드러진 100인 중 세종대왕이 1위를 차지했다."면서 "세종대왕의 업적과 정신은 우리 자긍심이고 보물"이라고 강조했다.

김위원장은 이어 "나라 안의 많은 학교와 곳곳에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고 앞으로는 세종대왕을 존경한다고 하면 서도 이 분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고, 이 분이 태어난 날을 경축하고 기리는 행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세종대왕은 아버지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경복궁 밖인 조선시대 한성 준수방(서울 종로구 통인동) 고을에서 아버지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 5살이 되었을 때에 궁궐로 들어갔고 임금이 되어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다."고 설명했다.

세종대왕 나신 곳, 통인동 길가에 조그마한 표지석만 남아 있어

김위원장은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은 지금 서을 종로구 통인동 길가에 신문지만 표지석만 덤그렇게 놓여 있을 뿐,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한글이 태어난 경복궁 어디에도 그 역사를 알리는 조

"세종대왕의 업적과 정신, 우리 자긍심이고 보물"



한글 관련 시민 단체들은 세종대왕 나신 618돌 세종남을 맞아 2015년 5월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세종대왕 나신날 축하모임을 개최했다.

그만 표시 하나도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후손으로서, 또 역사학자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 차에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찾아서 민족문화 성지로 만들자는 모임이 발족했다."고 전하고 "정부와 국민 모두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도와 달라."고 등참을 호소했다.

최기호 상임대표도 창립 취임문에서 "세종대왕은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였기에 1443년 경복궁에서 음양오행의 철학을 바탕으로 음성기판을 본 따라서 훈민정음을 친히 창제하였다."면서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국방을 튼튼히 했고 집현전 설치, 인재 양성, 관료, 조세, 형법제도 및 교통망 등을 정비, 나라의 기틀을 다졌고, 천문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문관 설치, 촉우기와 혼천의, 양부일구(해시계), 자격루(물시계)를 만들었으며 악을 정리하고 세종악보(정간보)를 창안하여 여민락, 보태령 등을 작곡했다."고 말했다.

최상임대표는 미국의 세계적인 과학자 제레드 다이어먼드 박사가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했으며, 레드야드 교수도 '세종대왕은 한국인의 자랑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자랑이다.'라고 말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최상임대표는 "우리는 겨레의 큰 스승이신 세종대왕의 위업과 유덕을 기리고, 고귀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곳, 준수방(종로구 통인동)을 성역화 하고 생사를 조성하여 온 국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려서 나라의 품격을 높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이정현 의원도 "평생을 백성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혁신과 포용의 리더십을 펼쳤던 세종대왕의 업적은 너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한글창제는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나 자랑"이라면서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통치하여 시대가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라고 말

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동길 위원장(전 연세대교수), 최기호 상임대표(전 외솔회 회장), 몽골 울란바토르대학 전 총장, 반재철 공동대표(전 흥시단 이사장), 임호열 시사일본여사 회장, 이상규 경복대 교수, 임종건 전 서울신문사 사장,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김석득 연세대 전 부총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대로 세종대왕나신곳찾기모임 대표가 운영본부장을, 김슬옹 전국국어운동대학생동문회 회장이 사무총장을 맡아 실무를 관장하고 있다.

예인홀에서 발대식을 마친 참석자들은 곧바로 이동, 오후 2시부터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이 모임을 알리는 축하행사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세종대왕께 큰 절을 대신 한 묵념을 올리고,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추진위원회 공동대표단과 배화여고 학생들이 세종대왕께 화환을 바친 후, 우리말 지킴이 대표들이 세종대왕 탄생일을 축하하는 떡을 바치고 큰 절을 올

렸다.

세종대왕 업적, 짐신 빛내는 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최기호 상임대표 인사말에서 "오늘,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5월 15일은 온 겨레의 스승의 날로 기쁜 날이다."라면서 "세종대왕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우리는 태어나신 곳을 성역화 하고 민족의 축제의 장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63년부터 시작된 스승의 날은 그해 5월 26일 청소년적십자(RCY) 중앙학생협의회에서 이날을 스승의 날로 정했으나 2년 뒤인 1965년부터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로 변경되어 시행해 오고 있다.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는 이대로 운영본부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세종대왕은 조선 건국 초기 나라가 어지러울 때, 국방과 경제, 문화와 과학을 발전시키고 출중한 업적을 많이 남겨 나라의 기틀을 튼튼하게 다졌다."면서 "그리기에 일찍이 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날,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정하고, 이 분의 정신과 업적을 이어받아 비른 정치를 하자고 이 날을 '세종날'로 정하고 여주 영릉에서 숭모제전을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부장은 이어 "그러나 이 분이 태어난 서울에서는 이 분을 기리는 제대로 된 경축 행사도 하지 않고 있으며 종로구 통인동 길가에 이 분이 태어난 곳임을 알리는 조그만 표지석만 놓여 있다."면서 "이는 후손으로서 바른 도리가 아니며 겨레와 나라가 빛나기 위해 서로 잘못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부장은 "이를 인터넷에 여겨 오래 전부터 이 분이 태어난 곳을 찾아 우리 자주문화 성지로 만들어 우리 자손과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나라 발전 기지로 만들자고 서울시와 정부에 건의 하였으나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 일본은 재무장하고 미국과 손잡아 세계 어느 곳이나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서는데다 주변 강대국들의 호전적 태도에 의해 이 땅이 다시 짓밟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국민위원회는 이어 "뿌리 깊은 나무는 선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다."면서 "세종대왕 업적과 정신을 살리고 빛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며 다같이 힘을 모아 세종대왕 나신 곳을 찾아 우리 겨레문화 발전기지로 만들어 인류문화 발전과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하자."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단체 대표들, 세종마을가꾸기회(회장 조기태)와 배화여고 학생들, 시민들 1천여 명은 농악대와 함께 세종대왕 어가를 앞세우고 행진을 시작, 광화문 안을 통과하여 세종대왕이 태어난 곳을 알리는 표지석이 있는 통인동을 거쳐 세종마을까지 축하행진을 했다.

온동기 기자



선플재단, '한일 대학생 사이버언어폭력예방 토론회' 개최

선플재단은 지난 5월 18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일 양국의 대학생들이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언어폭력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일 대학생 사이버언어폭력예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은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사이버 언어폭력은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생명까지 버리게 만드는 흉기와 같다. 한일 양국 간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을 위한 토론회가 가까운 이웃 나라 청소년들의 친선우의 증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벳쇼 고로 주한일본대사도 축사를 통해 "선플' 이란 말은 생소하지만,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운동에 찬사를 보낸다. 한일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한·일 청소년 교류가 철저히 진행되고 있고 대학 간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의원연맹 소속 김태환 국회의원은 "한·일 양국 젊은 학생들간 선플 문동이 시작된 것에 의미가 크다. 양국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혔고, 민병주 국회의원도 "선플운동과 같은 민간적인 교류를 통해 한일 관계가 좀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이어, 선플재단에서는 오는 5월 29일 13:30, 광화문 광장에서 '한중일 청소년 선플 평화선언식'과 선플음악회를 개최한다. '한중일 청소년 선플 평화선언식'은 미래를 이끌고 한중일 청소년들이 선플운동을 통해 한중일 친선우호 증진은 물론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데 앞장 서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한중일 청소년 선플평화선언식은 한중

선플운동으로 민간교류 앞장서는 한일 대학생



두 번째 줄 원쪽부터 일본 규슈대학교 마츠비라 티키토시 교수, 주한일본대사 벳쇼 고로,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김태환 국회의원, 민병주 국회의원

일 3개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중국 북경 청소년 선플 평화선언식'과 선플음악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며, 중국 쓰촨성에서 '용덕그룹 선플음악원'과 일본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선플선언식과 선플평화·우호문화 보내기'가 진행된다.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광화문 선플음악회'에는 선플홍보대사인 불후의 명곡 가

서울 광화문 한글가온길 얼마나 아세요

2013년 새문안로와 세종대로 일대 한글 문화관광의 중심지

2013년 광화문 새문안로와 세종대로 일대에 형성된 한글가온길은 한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조성되었다. 이 길은 외국 관광객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만든 한글 특성화 길이다. 한글가온길의 '가온'은 '중심'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이 길은 '광화문역 및 세종대왕 동상 - 세종문화회관 - 한글학회 - 한글가온길 새길들 - 한글이야기 10마당 벽화 - 주시경마당 - 주시경집터 - 한글글자마당 - 세종이야기'의 순서로 걸도록 짜여졌다.

한글가온길에는 한글을 예술적으로 승화한 작품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 '그대를 기다림'이라는 문구를 써서 붙인 작품은 한글가온길의 시작인 세종문화회관 주변에 있다. 이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왼쪽으로 고개를 들어야 한다. 그러나 사진 상에서 나타나듯 조형물들이 많이 부식된 상태여서 인터파크였다.

광화문 9호선 1번 출구 주변에는 '안녕하세요'라는 독특한 모양의 작품이다. '안녕하세요'의 첫 자음을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은 이 작품은 기둥이 인사하는 각도로 꺾여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자 동방에 위치한 국가로 알려진 한국을 잘 표현하는 조형물이다. 한글가온길에는 이렇게 크게 눈에 띄지 않아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작품이지만 한글을 형상화한 작품들이 많이 있어서 돌아다니며 찾는 재미가 있다.

새문안로 부근에는 한글가온길이라는 표지가 있다. 그 표지를 기준으로 길의 한쪽에는 한글이 창제되었을 때부터 세계에 널리 알려지기까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림과 함께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한글이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뒤 평민들과 아녀자들이 사용하면서 전해져 내려오는 동안 전기수에 관한 일화가 있다. 전기수란 전래동화나 조선시대의 소설을 재미있게 구현 동화하는 사람이다. 어떤 전기수는 구현동화를 하던 중 악당의 흉내를 너무나도 생동감 있게 표현을 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깊이 몰입을 한 나머지 전기수를 악당으로 착각하고 살해한 일화도 있다.

또한 "한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자 한글가온길의 핵심은 주시경 선생이다. 한글가온길을 따라 걷다보면 '용비어천가'라는 건물이 나오는데 이 건물 주변이 주시경 선생의 집터이다. 그래서 이 집터와 주시경 선생을 기리기 위해 도렴녹산 공원에는 주시경 선생과 헬버트 박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이 조형물의 한쪽에는 주시경 선생의 일생과 주시경 선생의 일생과 주시경 선생의 일생이 한글을 위해 만들었던 자료들의 설명이 되어있고 반대편에는 호머 헬버트 박사에



사의 일생과 그 당시 학생들을 가르쳤던 교과서들에 관한 설명이 있다. 주시경 선생이 한글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안에서 배우고자 하는 신경을 썼다면 호머 헬버트 박사는 선교사로서 한글을 연구하고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다. 한글을 알리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글가온길은 에스비에스(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일여 년 전에 소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한글가온길의 존재를 모르고 지나친다. 우리의 관심이 적은 상태에서 방치된 한글가온길은 위의 '그대를 기다림' 작품과 같이 부식되거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풀 속에 물리는 작품들이 많이 보였다. 이러한 작품들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관심과 흥보가 더욱 많이 필요한 시점이다. 박지현(대학생기자단2기)



한글가온길 시작에 있는 연내판

“바른언어 생활화 운동 함께해 주시길”



언어문화는 그 나라의 국격을 알려준다.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에 대한 자부심 가득한 대한민국이 글 변하는 시대 흐름과 인터넷으로 인해 장난스럽게 시작된 단축어나 은어들이 어느 틈에 언어폭력으로 이어져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상황까지 되었다.

언어는 소통과 통합의 수단이며, 정신문화를 공유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이기 때문에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바로 청소년을 지키고 국격을 높이는 일이라는 문화관광체육과 공형식 과장을 만나 언어문화 개선의 절박함과 상황, 그리고 대책에 대해 알아 보았다.

▶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우리 한글은 국제적으로 그 과학성과 창의성을 인정받고 있고, 한국 드라마나 K-POP 등 한류의 인기와 더불어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전 세계 세종학당도 급속히 확대되어 140개에 이르고 있으니 한국어는 그야 말로 이제 국제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말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국내에서의 국어사용 환경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이 만연하고, 방송과 인터넷에서는 비속어나 막말 사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주위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는 매우 심각해서 청소년의 96%가 육설을 사용하고 있고, 학교폭력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 언어폭력입니다.

언어는 한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 간에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고 관계를 맺게 해주는 소통과 통합의 수단이며, 정신문화를 공유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고 건강한 언어문화가 바로 국민통합과 국민행복, 문화융성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정부와 1,500여개의 민간단체가 힘을 모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로고의 뜻과 의미에 대하여 소개해 주십시오.

- '안녕! 우리말' 로고는 한글이 가지는 자모 조합의 묘미를 살려 '안녕'의 '안'을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을 눈, 코 입으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러싼 밝고 경쾌한 색깔은 '우리말'과의 만남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늘 사용하는 우리말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맞이하자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로고를 통해 '안녕! 우리말' 캠페인이 대중에게 쉽고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지난 2013년 12월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의 출범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이 세

문화체육관광부 공형식 과장 인터뷰

어른이 먼저 바르고 품격있는 언어 자녀 앞에 사용
생활 속 바른 언어 자연스럽게 정착할 것이라 믿어
광복 70주년... 일제 강점기 우리말 자유롭게 못 사용
되찾았던 우리말과 글 잘 가꾸어 문화선진국으로



번제 해를 맞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캠페인 등이 진행됐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이후 추진계획이나 활동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13년 12월 출범 이후 언어문화 개선 운동은 크게 공공언어, 방송·인터넷 언어, 청소년 언어의 세 영역에서 활발히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언어 분야에서는 44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매달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 보도 자료가 국민의 입장에서 쉽고 친절하게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는 평가를 평가단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분야에서는 아나운서연합회 등 방송 단체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가고 있고, 선별재단 등 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인터넷 언어문화개선에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사회를 주역인 청소년들의 언어개선을 위해 우리말 사랑동아리,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소속 동아리 등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언어문화 경진대회’, ‘청소년 연극제’, ‘우리말 콘서트’ 등 언어문화개선을 주제로 한 각종 경연대회나 행사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언어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개선을 향한 실천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언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언어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개선을 향한 실천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쉬운 언어는 인권이고, 어려운 언어는 규제다.’라는 인식하에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노력에 솔선수범 힘쓸 계획이며,

방송에서도 자율적으로 바른 언어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방송인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폭력적이거나 상처를 주는 말들이 많습니다만, 전국 선불통신사단이나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등 민간 단체의 활동을 확대해 악의적인 댓글이 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바른 언어 습관을 위해 연극제나 창작 가요제 등을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스스로 언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숨어있는 재능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말 가끔이나 바른 말 누리단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또래의 언어문화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가장 선

행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시나요?

- 바른 언어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언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언어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개선을 향한 실천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어문화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주제로 한 각종 경연대회나 행사를 개최해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언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언어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개선을 향한 실천 의지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구축된다면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는 평가나 규제가 없어도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쉽

고 바른 언어문화를 사용하고자 할 것이고, 방송 등 언론에서도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모범적인 언어 사용으로 언어문화개선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할 것입니다. 국민 개인이나 인터넷 공간 등 일상생활에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려는 의지를 갖고 이를 실천할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러한 이유로 앞으로 정부에서는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전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언어문화 개선 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언어문화 개선 범국민연합이나 선별운동본부 등 NGO 활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NGO들의 역할이 언어문화개선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언어 사용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관련된 것으로 자율적 실천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언어 사용과 관련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입니다. 공공언어 개선 활동의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분야겠지요.

그러나 그 밖의 부분은 범국민연합이나 선별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캠페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많은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또한 정부가 언어문화개선을 위해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시민단체 고유의 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언어문화개선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요.

▶ 문화체육관광부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운동 담당관으로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문화는 우리 정신의 바탕이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물질 승배, 경쟁 위주의 사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문화를 찾는 것이고, 그 중심에 말과 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융성의 토대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 소통과 신뢰, 나눔과 배려가 넘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은 문화융성의 중요한 메개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언어 의식을 바꾸는 것은 습관, 나이가 삶을 바꾸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른들이 먼저 바르고 품격 있는 언어를 자녀들 앞에서 사용한다면 생활 속 바른 언어는 자연스럽게 정착할 것이라 믿습니다.

금년은 광복 70주년이 됩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말과 글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광복과 함께 되찾았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잘 가꾸어 국민 통합을 이루고, 문화융성, 문화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바른 언어문화 운동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용태 기자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병기에 따른 논란은!

“우리말 어휘 70% 이상이 한자어로 돼 있어 한자 알아야” 찬성
“만 10세... 한자 병기에 앞서 한국어라도 제대로 알아야” 반대

교육부가 2018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이 상의 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에 한글과 한자를 병기(併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또다시 한자 병기 논란이 점화됐다. 1970년 한글 전용화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가 퇴출당했다. 하지만 지난 47년 동안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며 검토하는 것”이라며 “결정된 것은 없고 공청회 등을 통해 찬반 의견을 듣고 7~8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자 병기를 내세우는 이들은 자연스러운 한자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법 이해도와 어휘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초등학생에게까지 한자 교육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한자 병기를 반대한다.

이러한 기자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 인터뷰를 인용해본다.

이번 범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지금도 초등 3·4학년 학습량이 감자기 많아진다고 아무성인데, 한자 병기를 하게 되면 국어뿐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상당시간을 한자 가르치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자를 몰라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주장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고개를 저었다. 초등학교에서 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자기가 체험한 것과 교사의 설명이 더해져 확실한 개념으로 자리 잡는데, 오히려 초등학교에서 이 한자는 이런 뜻, 이런 글자풀이 식으로 가져가는 순간 개념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시) 한자 교육을 받고 온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반응 차이가 커지고, 한자를 모르는 이는 교과서 읽는 속도와 흥미가 떨어지며 수업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종·고교 교과서에서 한자를 자연스럽게 빼고 한글만으로도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다시 한자를 병기하는 것은 아직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아직 만으로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다. 한자 병기에 앞서 이 아이들이 과연 한국어로 제대로 아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본다. 영어의 경우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해 와 현재 초등학교 3학년만 되어도 영어 공부를 하기 하나, 이에 한자까지 얹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는 것이다. 결국 이런 부담은 사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친상하는 사람들은 ‘우리말 어휘 70% 이상이 한자어로 돼 있어 한자를 알 수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글문화연대 대학생기자단 271 이지영 기자’

선플 청소년들 앞장서 친절 환대가게 선정



평택 한글청소년선플누리단이 선정한 '친절 환대 가게' 1호점이 수경 대표와 학생들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남상민)와 (사)선플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전국대 교수)는 ‘환대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환대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의 선별운동 참가 청소년들이 친절 환대 가게를 선정하고 환대 실천서약을 받는 ‘환대실천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환대실천캠페인’은 반기문 손님이 오면 버스킹으로 뛰어나가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정을 느끼게 하고,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로 먼저 다가가서 친절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환대실천서약은 국적과 인종의 경계 없이 친절한 미소로 망설임 없이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환영합니다”라며 상대를 환영하는 말을 건네는 세가지 약속으로 선별운동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개된다.

청소년이 선정하는 ‘친절 환대 가게’는 평택 한글청소년선플누리단 청소년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친절한문화 전파를 위해 시작한 운동으로, 지난해 12월부터 평택지역 청소년 650여명이 추천 웹사이트에 친절 가게 세 곳의 이름과 추천사유를 적어 제출하고 종합적으로 통계를 내어 선정하였다. 가장 많이 추천을 받은 가게는 12곳을 선정하고 매주 한 곳씩 청소년들과 지역 언론사가 함께 방문하여 ‘친절 환대 가게’ 인증서와 환대 스티커를 전달하게 되는데, 지난 2월 5일에는 친절한 가게 5호점이 탄생했다. 추천 설문은 3개월마다 진행되어, 평택에서만 1년간 52개의 새로운 ‘친절 환대 가게’를 선정하게 되며 연말에는 선정된 52개의 가게가 참여하는 ‘선플 친절한 대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선플운동본부 이사장 민병철 전국대 교수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환대정신은 바로 선별운동이다.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청소년들의 ‘친절한 대우’는 환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플운동본부에서는 평택 한글고등학교의 환대 실천 활동사례를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환대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안산 상록고등학교, 광주 정광고등학교 등 전국의 선별운동 참가 학교가 각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선정하는 친절 환대 가게를 선발하고 충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남상민 회장은 “관광업계 종사자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참여로 환대서비스실천운동이 국민을 사고에 뿐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먼저 친절과 격려를 해줄 것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플운동본부 교수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환대정신은 바로 선별운동이다.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청소년들의 ‘친절한 대우’는 환대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계천에서 외국인 환대실천 캠페인

우리아이지킴이, 대학생 봉사단과 함께 진행

우리아이지킴이(대표 여명미) 대학생 봉사단은 3월 21일 토요일 서울시 종로 청계천 일대에서 환대실천 캠페인을 진행했다.

청계천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환대실천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캠페인에 참여한 봉사단원 양태호(외국어 대일본어) 학생은 “토요일을 맞아 가장 관광객이 많은 청계천에서 환대실천 캠페인이다.



우리아이지킴이 대학생 봉사단이 3월 21일 청계천에서 환대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조용태 기자

선플재단, 폴 포츠와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킨다

폴 포츠 선플 국제친선대사 위촉



선플재단은 4월 10일, 오페리가수 '폴 포츠'의 선플 국제친선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선플국제친선대사 폴포츠 가수 이사벨, 선플국제친선대사 오페리 가수 폴포츠,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

선플재단(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은 4월 10일(금) 오후 2시 역경을 극복하고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로 올라선 영국의 '폴 포츠'를 초청하여 '선플국제친선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선플국제친선대사로 활동 중인 팝페라 가수 '이사벨'이 '폴 포츠'에게 선플운동을 소개하고, 응원과 배려의 선플운동 취지에 공감한 '폴 포츠'가 선플운동에 동참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폴 포츠'는 위촉식에서 소감을 통해 "선플 흥보대사로서 악풀로 고통 받는 분들에게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긍정적인 메세지를 드리고 싶다. 악풀로 괴로울 때 주변에 털어놓고 이야기하기 바란다. 악풀로 인한 아픔

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선플재단 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악풀로 인해 생명을 던지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폴 포츠'의 감동적인 노래가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여 악풀 대신 선플을 더는 사람들이 넘쳐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평범한 휴대폰 판매원이었던 '폴 포츠'는 2007년 영국의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ITV '브리튼스 갓 탤런트'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가수로 거듭났다.

선플운동은 건전한 비판이 아닌 근거 없는 악풀이 당사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피해를 주는지를 인식하게 하고 사이버 언어문화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기구어 나가는 취지의 운동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올린 선플은 600만개를 넘어서는 등 보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조용태 기자

선플청년포럼, 바른 신체 바른 정신 함양 서울 4대문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 개최

선플청년포럼(회장 정은채)은 5월 23일(토) 11시부터 서울의 4대문인 숙정문, 흥인지문, 숭례문, 돈의문에서 출발하여 광화문 광장으로 모이는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웰니스 걷기대회는 학생들과 교사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선플운동을 통해 한중일 3국의 우호를 다지는 한중일 평화선언식 및 선플음악회와 함께 진행된 이번 웰니스 걷기대회는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를 갖춰주어 결국 바른 인성을 길러주는 데 목적을 갖고 지난 모바일 사용으로 골격계 변화로 인한 청소년 질병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악풀로 인해 서로를 헐뜯고 욕하는 인터넷 문화가 팽배해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는 사람 혹은 모르는 사람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행태는 우리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며 "〈선플 웰니스 걷기대회〉의 바른 워킹을 통해 수많은 악풀러들은 물론이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신체와 바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밝혔다.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를 활짝 편 자세로 행진하여 광화문 북측광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정은채 선플청년포럼 회장은 "지금 사회는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서 서울 4대문에서 각각 출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고운말을 외치며 뒷짐을 지고 어깨

충북 “세종 나신 날을 아시나요?”

스승의 날 5월 15일이 세종대왕 태어나신 날 알리기 나서

“세종 나신 날을 아시나요?” 김봉석(청주공고 3년)군은 지난 15일 청주 성안길을 방문했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매년 5월15일이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 ‘세종 나신 날’이었던 것.

김군은 “스승의 날로만 알았던 15일이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인 것은 전혀 몰랐다”며 “학교에서도 전혀 배우지 않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사실을 배웠고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스승의 날’과 ‘세종 나신 날’의 관계를 아는 충북도민은 많지 않다.

취지 결과 120여명 중 90여명이 ‘세종 나신 날’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 즉, 도민 10명 중 8명이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만 알고 있었다.

충북도와 청주대 국어문화원들은 우리 말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탄신일에 맞춰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청주 청소년 광장에서 ‘1회 세종 나신 날’ 행사를 열었다.

청주대 국어문화원은 지난달 3일까지 ‘1기 우리말 가꿈이’ 참가자를 모집해 60명의 ‘우리말 가꿈이’를 선정했다. 가꿈이들은 도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며 우리말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모집했다. 100여명의 도민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받아쓰기 대회, 세종대왕 사행시 응모 등 다양한 행사로 도민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알렸다.

변문섭(25·청주 청원구 내덕동)씨는 “대학생들이 한글에 대해 알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세종대왕 탄신일인 것은 몰랐다”고 말했다.

최연락 충북도 문화예술과 주무관은 “도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만 해줄 뿐인데 많은 대학생이 참여, 직접 기획 해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 놀랍다”며 “우리말 가꿈이 활동을 통해 많은 도민이 한글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 할아버지가 15일 오후 2시 청주 청소년 광장에서 열린 ‘세종 나신 날’ 행사 중 받아쓰기에 참여해 정답판을 들고 있다.

관심을 갖고,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충북도 우리말 가꿈이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우리말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한다.

김준식 기자



‘전북도 우리말 가꿈이’ 한옥마을서 거리 홍보

“아름다운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세요” 대학생·고교생 등 참여

2015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가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을 위해 거리로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북도청과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하는 우리 말 가꿈이 사업은 국민들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이다.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이 활동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전북에서는 전주대 국어교육원 주도로 도내 대학생과 고등학생 8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라북도 우리말 가꿈이’는 지난 24일 오후 전주한교에서 여는 마당 행사를 갖

고 한옥마을 일대에서 바른 언어사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날 여는 마당에서 심보균 전북도행정부지사는 “나랫말을 바로 세우는 일이 나라의 일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아름다운 언어문화로 전라북도의 이미지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우리말 가꿈이들은 파란색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어 모둠별로 전주한옥마을을 들며 시민들과 내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 ‘안녕! 우리말’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쳤다. 이들은 우리의 전통의 상인 한복을 곱게 차려 입고 시민들에게 우리말 및 춤법 문제를 내기도 하고, 교복을 입고 짙푸하게 색색의 풍선을 나누어 주며 모둠에 따라 다양한 거리 홍보를 선보였다.

전북도 우리말 가꿈이들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도내 마을에서 거리 홍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올 연말까지 청소년 언어 순화, 공공언어 평가, 한글날 기념행사 등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말과 관련해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상대, 스승의 날 맞아 세종대왕에게 감사 편지 쓰기

바람직한 한글문화 전파 앞장 대학생 동아리 창원 용지호수공원 일원에서 홍보활동

국립 경상대학교(GNU·총장 권순기) 국어문화원(원장 임규홍 국어국문학과 교수)은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 회원들이 스승의 날 맞아 지난 15일 창원 용지호수공원 일원에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말 가꿈이’는 범국민의 바른 언어 사용과 바람직한 한글문화 전파에 앞장서는 대학생들의 동아리로 경상남도의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됐다.

경상남도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한 ‘2015년 광역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에 선정돼 경상대 국어문화원과 공동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말 가꿈이는 ▲청소년언어·공공언어·방송언어 실태 조사 ▲토박이탈 연구 ▲한글날 기념행사 ▲우리말 알리기 거리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문화개선 운동을 알리고 국민의 참여를 이끄는 활동을 펼친다.



지난 4월 24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리말 가꿈이’들은 1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창원 용지호수공원 일원에서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스승의 날이자 세종대왕 탄신일이기도 한 5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 우리말 가꿈이는 사랑의 나무 만들기 행사

강원대학교 함인섭 광장과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

5월 15일 가정의 달, 세종대왕 나신 날 이자 스승의 날을 맞아 강원도 우리말 가꿈이는 강원대학교 함인섭 광장과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나무 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시민들과 학생들은 우리말과 한글사랑, 세종대왕에 대한 마음, 품고 있는 소망을 나뭇잎 접자 메모지에 정성스레 담았다.

풍성해진 ‘안녕! 우리말 나눔’은 우리 모두의 우리말, 한글 사랑과 가족 사랑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다.



울산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 활동 본격화

울산대에서 ‘선배와 함께하는 우리말 나누기’ 행사

지난달 24일 출범한 울산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가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울산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대표 최효정)는 13일 오후 2시 30분 울산대 20호관 215호에서 ‘선배와 함께하는 우리말 나누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날이 갈수록 변질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언어 습관을 되짚어 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약사고등학교 학생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소년 언어 순화 교육이 진행된다. 또 우리말 가꿈이 동아리는 오는 15일

HJ PnA Happy & Joy

HJ PnA는 Mission Critical 인프라가 요구되는 반도체, 전산센터, 병원 발전시스템에 UPS, 배터리, 발전기, 풍조시스템 등을 고객의 의견에 맞춰 최적의 설계, 시스템 조합, 정밀 시공 그리고 안정된 유지보수, 관리까지 하는 Never Stop Solution 으로써 소중한 고객의 재산, 데이터 및 정보 생산물을 지키는 가장 튼튼하며 신뢰 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Be Happy and Joy with HJ PnA

Nothing protects quite like
HJ PnA

사/업/분/야

UPS 설비구축

항온항습기 설비구축

STS 설비구축

Generator 설비구축

Battery 설비구축

가스소방 설비구축

수변전 설비구축

전기공사

IDC 컨설팅 서비스

칼럼 | 여영미 / 우리아이지킴이 상임대표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는!



IS 가담설 김군이 터키 행 전 '나라와 가족을 떠나고 싶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라는 글을 남겼다. 김군의 행동이 '사춘기 철없는 행동'이라고 단정하고 외면하기보다 한번쯤 우리사회의 변화와 문제를 깊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SNS는 기성세대보다 젊고 어린 세대가 더 친숙하고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본인의 관심분야에 대한 짚차는 국경을 넘나들며 추적하고 파헤친다.

청소년기 단순 가출 수준이었던 일들은 이제 글로벌화가 되어 '가출'은 국경을 넘고 위험지역을 넘는다.

이 시대 청소년들은 무슨 꿈을 꿀까. 그들의 우상은 어떤 사람일까.

김군은 터키로 출국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IS에 가입할 수 있고, 어떤 헤택이 있는지에 대해 온라인에서 집중 검색했다.

IS는 가입하게 되면 좋은 월급과 고급 승용차를 지급한다고 알리고 '세계 끝곳에 배치되는 IS 대원들은 어디 가든 좋은 대접을 받는다'고 하면서 결혼을 한 대원에게 집을 주고 외국인 대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군은 집·평수와 고급차, 명품 브랜드가 성공의 척도처럼 상업주의 광고일색이었던 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큰 충격을 던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상식이 상식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아주 일례로 얼마전 집값이 8억인데 전세가가 7억인 아파트의 임대 계약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 전세가 떼면 집주인은 1억이 자신의 돈이다. 세입자는 7억원이 자신의 돈이다.

세입자가 더 부자인 셈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더 부자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인터넷 활용에 전문가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청년·청소년들에게 배워야 한다.

직장에서 직위가 높은 기성세대가 직위가 낮은 청년들에게 활용법을 수시로 묻고 배운다.

인터넷과 기계의 시대에 나이 같은 정부 반비례 하고 있다.

신세대가 기성세대에 더 배울 것이 많은 것인지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또한 일반적인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IS 가담설의 김군이 트위터를 넘나들고 SNS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터키에 보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면서

어머니의 모성애까지 이용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유혹한 곳에 훌리듯 떠났다. 속으로는 인터넷 활용이 본인보다 서툰 부모를 가볍게 무시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대한민국 땅, 집에서 그 멀리 시리 아행을 추진하고 계획했을지 부모는 생각조차 못하였을 것이다. 바로 인터넷에서는 청소년보다 뒤떨어진 세대이기 때문이다.

김군은 집·평수와 고급차, 명품 브랜드가 성공의 척도처럼 상업주의 광고일색이었던 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큰 충격을 던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하면 상식이 상식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아주 일례로 얼마전 집값이 8억인데 전세가가 7억인 아파트의 임대 계약 모습을 지켜본 적이 있다. 전세가 떼면 집주인은 1억이 자신의 돈이다. 세입자는 7억원이 자신의 돈이다.

세입자가 더 부자인 셈이다. 집주인이 세입자보다 더 부자라는 일반적인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인터넷 활용에 전문가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청년·청소년들에게 배워야 한다.

직장에서 직위가 높은 기성세대가 직위가 낮은 청년들에게 활용법을 수시로 묻고 배운다.

인터넷과 기계의 시대에 나이 같은 정부 반비례 하고 있다.

신세대가 기성세대에 더 배울 것이 많은 것인지 한번 역발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 또한 일반적인 상식이 무너지는 것이다.

IS 가담설의 김군이 트위터를 넘나들고 SNS를 활용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터키에 보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면서

어머니의 모성애까지 이용하면서 철저히 자신을 유혹한 곳에 훌리듯 떠났다. 속으로는 인터넷 활용이 본인보다 서툰 부모를 가볍게 무시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대한민국 땅, 집에서 그 멀리 시리 아행을 추진하고 계획했을지 부모는 생각조차 못하였을 것이다. 바로 인터넷에서는 청소년보다 뒤떨어진 세대이기 때문이다.

김군은 집·평수와 고급차, 명품 브랜드가 성공의 척도처럼 상업주의 광고일색이었던 사회의 치부를 그대로

기고 | 이다정 / 대학생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SNS까지 가세하여 과급효과 큰 언론의 힘

오늘날 신문, 영화, 잡지, 텔레비전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중들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스컴은 우리 생활에 빠지지 않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매스컴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매스컴의 확산에 따라서 언론의 활동 역시 비례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다. 언론의 주된 목적은 홍보를 위한 도구, 정보 전달수단 등이 있으며 정보전달자와 정보를 수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서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공유하는 환경이 형성되어있다. 자연스럽게 언론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매체의 장이 되었다. 또한 보편화 되어있는 만큼 지식적인 부분부터 아주 예민하고 섬세한 감정적인 부분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언론은 영향력만큼이나 여러 장점들이 있다. 그 중 세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는 과급효과이다. 어떤 일의 여파나 영향이 차츰차츰 여러 곳으로 퍼져나간다. 즉 언급을 통해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언론의 자유를 통해 양쪽 방향의 의견들이 공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빠른 전파속도이다. 과거와 달리 다양한 소식들을 보다 빨리 전달한다는 것이다. 빠른 전파속도로 인해 사건, 사고들을 매우 빠르게 접하고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는 만큼 최

근 언론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매스컴이 지나는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 인격 모독, 명예훼손 등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론의 공간은 모두의 공간이므로 누군가가 부정적인 목적으로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여 여론을 몰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연예계에서는 이태임 사건에 이어 개그맨 정동민의 여성 비하 논란 등 여러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일명 마녀 사냥 식 여론몰이라고 불리며 어떤 한 번의 실수나 한 가지 면만을 부각시키면서 부풀리는 행위이다. 두 가지 경우가 흔히 생기게 되는데, 첫 번째는 잘못된 민망을 부풀린 과정으로 인해 진실이 가려져 버리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두 당시자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일반적인 매도성 글에 여론이 동조하는 경우이다. 잘못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만 여론몰이로 인한 마녀사냥은 옳지 않다. 언론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받는 한 부분이다. 자신의 자유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언론의 힘을 보여주는 경우는 정치계, 연예계는 물론 인간의 현실성을 잘 보여주는 영화계에서도 존재한다. 영화의 한 사례를 들면 신 한솔 감독님의 '헬머니'도 그 중 한 가지의 경우이다. 극 중 헬머니는 교도소에서 감옥을 3번 왔다 갔다 한 범죄자로 나온다. 성이 다른 두 자식을 가진 엄마이고 사업을 하다 맘에 뛰어온다. 하지만 그녀 나름대로의 죄책감

때문에 출소 후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아들 집에서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식모살이를 자처한다. 이후 '목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주목을 받지만 한 순간 전과법, 아들을 버린 매정한 엄마로 언론에서 낙인찍히며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출연을 포기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나와 언론에 호소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다. 언론이 가진 힘을 통한 좋은 예시와 나쁜 예시를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다. 하지만 세상은 영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어쩌면 영화보다 현실이 더 진인하다. 언론을 악용하는 조종자에게 피해를 보거나 호소할 기회조차 뺏기기도 한다.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 역시 여론몰이로 인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사람의 한 가지 면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혹은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생기면 모든 증거를 확실히 다 잡아낸 사람처럼 언론이 모여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언론을 악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다른 작은 문제를 크게 부풀려 들추는 경우도 있다. 언론은 국민심리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견, 방향, 트렌드 등의 세밀한 부분부터 큰 부분까지 매스컴이 설정하는 방향으로 기울기 쉽다. 그만큼 언론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큰 부분이므로 더욱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가진 장점을 통해 여론몰이나 언론플레이어를 줄이는 캠페인을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와 같은 문제는

♣ 생활의 지혜 ♣ 탈무드의 말, 말, 말

산으로 일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 일인지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해답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

어 주는 것이고 아들이 살아갈 사회가 일, 즉 땅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될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속에는 학업과 건강과 균형이 포함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사회를 물려주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편집자 주

바른 언어를 쓰는 것이 쑥스러웠다고요?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전주리 아나운서 진행
공형식, 국어정책과장 "한나라 품격은 언어와 직결"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사업은 올해 5년차를 맞는 청소년 바른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으로 KBS의 현재 아나운서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했다.

2014년 4월 22일 서울 성남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캠페인이 진행되었다. 캠페인을 진행한 KBS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 진행자 전주리 아나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예를 들면 욕설, 사이버 언어폭력, 차별과 편견의 말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자신의 머리와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엘마 게이츠가 했던) 〈분노의 침전물〉이라는 실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욕을 할 때 나오는 침을 가지고 쥐에게 투여해봤더니 쥐가 죽었어요.(침 속에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물질의 영향) 여러분들이 욕할 때, 그 침을 누가 먹나요? 여러분들 자신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삼처를 주기 위해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속어,

죽약어 등의 문제점을 찾고, 바른 언어습관을 배우고 이런 시간에서 전주리 KBS 아나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 예를 들면 욕설, 사이버 언어폭력, 차별과 편견의 말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자신의 머리와 마음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엘마 게이츠가 했던) 〈분노의 침전물〉이라는 실험인데요. 여러분들이 욕을 할 때 나오는 침을 가지고 쥐에게 투여해봤더니 쥐가 죽었어요.(침 속에 있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물질의 영향) 여러분들이 욕할 때, 그 침을 누가 먹나요? 여러분들 자신이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친구에게 삼처를 주기 위해 욕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겁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태현, 성남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내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바른 말 고운 말 많이 사용해서 주위의 친구들에게도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전은덕, 성남고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이

배웠던 바른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니까 언어 표현에 조금이나마 신경을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공형식,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장은 "한 나라 사회의 품격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떤 언어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언어문화를 잘 가꾸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언어문화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전주리 아나운서는 "여러분, 바른 언어를 쓰는 게 어렵나요? 돈이 드나요? 그런데 왜 친구들에게 좋은 표현들을 잘 안 해줬어요? 쑥스러워서? 여러분들도 오늘은 부친에게 친구에게 좋은 말, 친구가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마무리를 했다.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은 올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110개교를 방문하여 올바른 우리말 전도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캠페인 참여신청이나 자세한 내용은 〈안녕, 우리말〉 범국민 누리집(<http://urima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독립열사들의 혼, 멋글씨로 담아내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강병인의 글씨로 듣는 독립열사의 말씀> 전시 눈길



태극기가 걸려 있는 형무소 건물



형무소 상설전시관 2층에는 독립운동가 수형기록표 5천여장을 모아놓은 추모공간이 있다.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과 강병인 작가의 '독도는 우리 땅'을 하나의 작품으로 나타냈다.

올해는 3·1절 제96주년이자 광복 제70주년의 해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10옥사에서 <강병인의 글씨로 듣는 독립열사의 말씀> 기획전시가 열렸다. 우리 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셨던 애국지사들의 말씀을 멋글씨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그 결과 50m 길이의 천에 걸친 멋글씨로 된 작품들이 전시된다.

의 입구에서 출구까지 천장에 걸쳐 걸려 있는 천이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돌아온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50m 길이의 천에 썼다고 한다.

좁은 옥사 안에는 약 20여 점이 넘는 작품들이 폐허로 걸려 있었다. 그 중에는 서대문형무소에 투옥되었던 애국지사들의 말씀과 더불어, 나리를 지키고자 했던 다른 애국지사들의 말씀들도 멋글씨로 표현되어 있었다.

한 인물의 말씀들이 각기 다른 다섯 가지 서체로 쓰인 것이 인상적이다.

멋글씨 작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다. 바로 옥사

한국인 작가의 다른 멋글씨 작품이나 전시활동 등에 대해 궁금하다면 <강병인 웰리그리피 연구소>(<http://www.sootong.co.kr>)에서 멋글씨 예술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웰리그리피'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멋글씨'라는 순화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 많이 퍼뜨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병인 작가의 다른 멋글씨 작품이나 전시활동 등에 대해 궁금하다면 <강병인 웰리그리피 연구소>(<http://www.sootong.co.kr>)에서 멋글씨 예술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웰리그리피'라는 단어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멋글씨'라는 순화어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 많이 퍼뜨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2기 이소영 기자

칼럼 | 이현원 / 칼럼니스트



'인명재처
(人命在妻)'
'처화만사성
(妻和萬事成)'

우리 사회에서 이미 필수 품이 되어버린 '카톡'으로 유행하고 있는 말이다. 우스갯 소리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한번쯤 남성을 가슴을 파고들었던 한자말이다.

필들이 아들이 하나면 금메달, 딸이 들이면 은메달, 아들이 들이면 동메달에도 못 미친다고 한다. 아들만 둔 부모는 세월의 무상에 헛쓸 뿐이다. 그뿐이 아니고, 나이가 먹은 아내가 골국을 끓이면 남편은 겁이 난다는 말도 있다. 심지어는 남자는 아내에게 맘 맞는 시리즈에서, 50대는 외출에서 돌아온 아내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면 매 맞고 60대는 아침에 '밥 차려 달라'고 하면 매 맞는다는 말이 인기 얻으며 떠돌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던 여권(女權)이 제자리를 찾았든, 회화적(戲劇的)이고 자조적으로 과장된 얘기도, 아니면 남자들의 편차 않은 마음에서 나온다. 최근 여권의 신장을 반영한 실상이다.

요즘 매스컴을 도배하는 시사적인 인물로도 여성의 우리 사회의 주연을

휩쓸고 있는 인상이다. 대한항공의 전 조부사장, 종북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신모와 황모 여인, 소속정당이 해산 선고를 당하고 보복이란 말로 시선을 모으는 통진당 이대표, 성추행과 폭언으로 시끄러운 서울시향의 박대표, 어느 모임 자리에서 먼저 자리를 뒀다고 교사를 밟고 걸어찬 여교장 등 이후 얼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여인들이 박수 받는 일로 여론의 초점이 되었으면 좋으면만 실은 그렇지 못해서 뒷맛이 슬프다.

여자 수장(首長)이 많이 나오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현실이 오늘날 추세라 하더라도, 거기에 걸맞는 인격을 겸비했으면 좋겠다. 리더의 위치에 오르거나 대중매체의 시선을 받게 되면, 김추어진 인성의 힘이 어떻게든지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맞추어 인성이 뒤따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다.

'방통회향'으로 부르는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을 좀 더 짚어보자.

그녀가 대한항공 오너의 딸 신분이기에 혼쭐같이 문제를 파급되었다고 본다. 가진 자, 권력자들이 궤도를 찾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싫을 것이다.

문제는 '제발총수 자녀 증후군' 현상이 10대 대중에까지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육, 철십년대만 해도 '아들 딸 구분 말고 하나님 낳아 잘 기르자'란 구호 아래 산아제한을 범국가적으로 장려

했다. 이제는 시대가 뒤바뀌어 출산율이 너무 낮아 거꾸로 아이 많이 낳기를 권장하고 있다.

슬하에 한 둘뿐인 귀한 아들과 딸, 거기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부모의 과임보호 속에 자랄 수밖에 없다. 가장

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소홀한지 오래되었다.

학교의 교육은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지식 전수에

만 힘쓰고 있다. 인성교육에 빼앗기는

시간을 학교나 학부모나 누구도 원치

않는 현실이다.

그렇게 자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밝은 사회를 만들고, 국가의 대들보 역할을 하겠는가. 우리 주위에서 솔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는 이런 원초적인 사유가 크다고 본다. 겉으로 보이는 양적인 출생이나 부에는 관심이 많으나 내적이고 질적인 인성에는 모두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형의 현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가치관과 윤리관이 추락하고 불질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혁신 차별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 안 들리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기다듬어야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잊어버린, 참고 주며나에서 녹슬고 있는 인성을 되찾아야 하겠다.

이제는 시대가 뒤바뀌어 출산율이 너무 낮아 거꾸로 아이 많이 낳기를 권장하고 있다.

슬하에 한 둘뿐인 귀한 아들과 딸, 거기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부모의 과임보호 속에 자랄 수밖에 없다. 가장

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소

홀한지 오래되었다.

학교의 교육은 좋은

상급학교에 가기 위한 지식 전수에

만 힘쓰고 있다. 인성교육에 빼앗기는

시간을 학교나 학부모나 누구도 원치

않는 현실이다.

그렇게 자란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밝은 사회를 만들고, 국가의 대들보 역할을 하겠는가. 우리 주위에서 솔하게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는 이런 원초적인 사유가 크다고 본다. 겉으로 보이는 양적인 출생이나 부에는 관심이 많으나 내적이고 질적인 인성에는 모두가 소홀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균형의 현상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가치관과 윤리관이 추락하고 불질만능주의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혁신 차별을 찾지 않는다는 말이 안 들리기를 바란다.

이제라도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기다듬어야겠다. 그리하여 우리가 잊어버린, 참고 주며나에서 녹슬고 있는 인성을 되찾아야 하겠다.

어린이는 천사, 손자 손녀 기르는 정

칼럼 | 박재국 / 작가, 인천환경연대 회장



요즘 TV에 영화배우 송일국의 삼동이 아들들과 텔런트 이휘재의 쌍둥이 아들들이 자주 등장한다. 인기 연예인들의 자식 사람에 유별난 것을 보며, 옛날, 필자의 어린이 사랑과 자식 사랑도 낭설랐음을 회상하곤 한다.

필자는 4살 어린동생 재달이와 그 친구들을 무척 귀여워했다. 동생 재달이는 착했으나 먼저 시비 거는 아이에게는 그냥 맞지 않고 일격을 거해 한 두 살 더 먹은 아이도 맞고서 울며 도망가는 일이 많았다. 숨비꼭질 할 때면 재빨리 뛰어가 엎간이나 벽 뒤에 얼른 숨는 민첩함을 보였다. 잘 생기고 똑똑했던 그 동생은 흥역을 앓다 우리 곁을 떠났다. 동생을 떠나보낸 나도 울고 계시는 부모님 옆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러던 중 1년 후에 지금의 여동생 재숙이가 탄생하여 얼마나 기뻤던지 탄성을 지르고 동생에게 온갖 정을 쏟으면서 지냈다. 이 동생 역시 어여쁘고 끙끙이며 자라면서 재물들이 되었다. 나는 동생을 업어 키우다 시피 했고 자라면서 동생 친구들을 많이 모아놓고 술래잡기와 숨비꼭질 등 온갖 놀이에 끌려주고 놀아주니 동생 친구들 모두

나를 잘 따르며 화합의 일체감을 이루는 마을이 되기도 하였다.

부모님이 빌에 나가 일하실 때도 동생을 데리고 나가 밭두렁에서 놀았다. 필자 아버지도 46세에 본 막내딸이라서 애지중지하며 기르셨기에 5일장 서는 날도 읍내에 남매를 데리고 나가서서 맛있는 장국밥이며 괴자와 뱡이며 새우 새 신발까지 사 주었다.

이렇게 등심 속에서 살던 중, 영장이나 군 입대를 하는 날 6학년이 된 동생과 어린 조카 3명이 동구 밖까지 나와 손짓하며 환송할 때, 나 또한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었다. 입대하여 부관 병과로 작전과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병과는 판 세상이었으나 후배 병사들을 고향마을 조카나 마을 아이들 같이 생각하고 어깨주며 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냈다. 각 입대한 김윤종을 의형제를 맺고 친형제같이 지내 타 병사들이 부러워 할 정도였다.

어느덧 필자도 제대를 하고 그리웠던 동생, 조카들과 재회하여 고향에서 반년 정도 농사를 짓다가 인천시청 임시 공무원에 임용 됐다는 전보를 받고 시장에서 쌀장사 하는 사촌 형에게서 돈 1천5백 원을 빌려 급거 상경했다. 취직을 앞둔 주신 고한 형님 댁에서 숙식을 하며 아이들 공부 가르치며 고단하고 부지런하게 살았다. 두 달 후, 첫 봄금을 아껴두었다가 방을 엔어서 자취를 시작했던 나는 종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여동생을

나를 잘 따르며 화합의 일체감을 이루는 마을이 되기도 하였다.

그럭저리 몇 년간 아이들 없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에만 전념하다가 동생 먼저 결혼을 시키고 나니 외롭던 중, 나도 곧 결혼을 하고 아들딸을 낳고 보니 옛날 어린이들 사랑 이상으로 자식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일찍 퇴근하여 애들을 업어주고 같이 뛰놀고 술래잡기와 노래하기를 하며, 밤에는 따듯한 방에 앉아 옛날 얘기도 해주다 보면 어느덧 취침시간이 되어 녀석들이 내 양쪽에서 자면서 아들은 입에 손을 대고 말은 아빠 귀를 잡고 잠들곤 했다.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세월은 흘러 아들딸이 성장하니 자연히 오밀조밀한 정은 조금씩 덜해졌고 공무에 전념하며 살던 중 딸이 먼저 결혼을 하고 외손녀를 보았다. 퇴직 후 다소 적적 하던 차에 다시금 옛날처럼 등심에서 손녀딸을 업어주고 즐겁게 놀며 살던 중, 아들이 결혼을 해서 친손녀 손자를 보니 날이갈 것 만 같아 기뻤다.

요즘들이 왜 그렇게도 예쁘고 귀여운지 지 아빠마냥 할아버지 집에서 잘 때는 할아버지 귀를 잡고 진다. 깃털은 통한데다 우리 조손(祖孫)을 두고 하면 그해가 1557년 명종 조였다. 손자 역시 전병을 많이 앓아 아비없는 손자 기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으며 손자 숙길이 아파서 밥을 안 먹고 신음을 때 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암자며 오직 손자 휴유되기만을 밟았고, 혹시 이들이 나쁜가 하여 숙길을 수봉으로 고쳤다가 2년 후에는 또 원래로 고쳤다. 지금도 충분히 광산 선영의 그의 묘비엔 '이원배 지묘'로 기록돼 있다. 역사서에 인조 때 김육선생과 송시열 정승이 이원배의 자식 사람이며 인자한 품성은 하늘이 낸 인재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이처럼 이 어른에 비길다면 필자는 평범한 손주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험해 때때로 아파하는 세상에

다소라도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서 과거를 회상하고 행복에 겨운 현재

를 돌아본다.

업이 키우던 외손녀는 벌써 중학교 1학년생으로 반장을 맡고 있고, 친손녀는 초등학교 1학년으로 부반장을이다. 손자 는 어느덧 유치원생이 되어 선생님의 칭찬을 많이 받고 있다. 너무나도 기쁘고 대견스러워 을미년은 우리 집의 경사요 영광의 해라고 자부해 본다.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이다.

혹자(或者)는 필자의 이러한 어린이 사랑을 비아냥거리는 분도 있겠지만, 450년 전, 목재 이문간(1494~1567) 할아버지는 그가 남긴 양아록(養兒錄)에서 아들은 병약하여 7세의 자식을 두고 44세에 요절할 때 이문간은 64세였으며, 그해가 1557년 명종 조였다. 손자 역시 전병을 많이 앓아 아비없는 손자 기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으며 손자 숙길이 아파서 밥을 안 먹고 신음을 때 같이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암자며 오직 손자 휴유되기만을 밟았고, 혹시 이들이 나쁜가 하여 숙길을 수봉으로 고쳤다가 2년 후에는 또 원래로 고쳤다. 지금도 충분히 광산 선영의 그의 묘비엔 '이원배 지묘'로 기록돼 있다. 역사서에 인조 때 김육선생과 송시열 정승이 이원배의 자식 사람이며 인자한 품성은 하늘이 낸 인재라고 칭찬할 정도였다.

이처럼 이 어른에 비길다면 필자는 평범한 손주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이 험해 때때로 아파하는 세상에 다소라도 귀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서 과거를 회상하고 행복에 겨운 현재를 돌아본다.

셋째로 취식 등 화기를 사용할 시에는 정해진 이외장소에서만 실시하여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피해야 하며, 고기와 구울 때는 알맞은 크기의 불판을 사용하여 가스렌지의 부탄가스 부분을 덮지 않도록 해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조리중에 불길이 거세지면 뚜껑이나 물기를 짜낸 수건으로 덮어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다가올 때 따라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사고는 인재에 의한 사고라고 사실을 기억해 당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럼 캠핑장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인천서부소방서에서 캠핑장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즐거움과 화합 속에 숨겨졌던 위험성이 수면위로 들어난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는 위험을 인지하고, 캠핑장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초기 화재의 경우 1개의 소화기는 대형 소방차와 버금가는 효율을 보여준다. 소화기의 휴대를 습관화하고 압력과 액체가 충분한지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칼럼 | 김대진 / 서부소방서 홍보교육팀 소방교

이제 완연한 봄이 되면서 길거리에는 움츠렸던 개나리와 목련과 같은 봄꽃들이 서서히 개화하고 있다.

이렇게 기운이 높아지면서 사람들도 겨우 내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과 여행지를 찾아 아외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졌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캠핑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날로 뜨거워져 2015년 추석 캠핑인구는 300만에 도달했으며, 산이나 바다, 들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애영을 즐겼던 과거의 캠핑에서 화려하다는 뜻의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애영하다의 캠핑(camping)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글램핑에 까지 이르게 됐다.

글램핑은 어원 자체에서 화려하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텐트 내에 호텔과 같이 포근한 잠을 잘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이 비치되어 있다.

하지만 텐트 내에 각종 전기장비가 비치될수록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최근 강화도에 위치한 캠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인파까운 일이 발생했다.

둘째로 최근 텐트 내 각종 편의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제품 사용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전기제품을 사용할 때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하고 잠자거나 이동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 전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고, 노후화 된 전기제품의 경우 사용 전에 반드시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로 취식 등 화기를 사용할 시에는 정해진 이외장소에서만 실시하여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피해야 하며, 고기와 구울 때는 알맞은 크기의 불판을 사용하여 가스렌지의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조리중에 불길이 거세지면 뚜껑이나 물기를 짜낸 수건으로 덮어 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격적인 캠핑 시즌이 다가올 때 따라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사고는 인재에 의한 사고라고 사실을 기억해 당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설

한글 스승' 세종대왕 나신 날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다큐웹(malteo.korean.go.kr)' 누리집을 통해 2015년 4월 6일부터 17일까지 앞서 소개한 용어들을 걸음활 우리말을 공모하였다. 그 결과 '드론'에 158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에 170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되었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 새로 들어와 쓰이는 외국어? 외래어나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쉽고 쓰기 좋은 우리말로 다듬고자 하는 의미에서 다들은 말을 선정하는 것이다.



안녕! 우리말

우리의 얼굴인 말과 글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이
꽃필수 있도록
'곱고 아름다운 우리말'에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면 어떨까요?

쉬운 말로 국민과 통하는 공공언어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부 정책을 알립니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풍격 있고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아름다운 방송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키는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기성세대의 관심과 청소년의 참여로 가꿔가는 청소년 언어

-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대합니다.
- 격려와 위로의 대화로 희망찬 삶을 만듭니다.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 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